

선암사·대흥사 세계유산 등재 본격 '시동'

〈순천〉 〈해남〉

추진위 발대식·업무협약 체결
범주사 등 7개 사찰 포함 추진

전통 산사(山寺)인 순천 선암사와 해남 대흥사를 세계 유산(World Heritage)으로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순천시와 해남군은 최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의 전통 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위원장 지승 총무원장) 발족식에 참석해 순천 선암사와 해남 대흥사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순천 선암사와 해남 대흥사를 비롯해 보은 범주사, 공주 마곡사, 양산 통도사,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등 7개 사찰을 2018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은 세계유산 협약에 따라 1972년부터 등제가 시작됐고 문화·자연·복합유산으로 나뉜다. 등제는 세계유산위원회가 매년 등록 신청한 문화유



문화재청, 순천 선암사·해남 대흥사 등 관련 사찰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최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7개 전통산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순천시 제공>

산과 자연유산 중에서 6월에 선정한다 선암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순천만, 낙안읍성 등과 연계해 세계 각국의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순천 선암사는 불교의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건물들이 조선시대의 건축 양식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변형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어 한국 불교 건축사를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유산으로 국내외에서 평가받고 있다.

해남 두륜산(頭輪山)의 빼어난 절경을 배경으로 자리한 대흥사는 임진왜란 이후 서산대사의 의발(衣鉢)이 전해지면서 호국불교(護國佛敎)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는 도량으로, 북미특란 마에여래좌상(국보 제308호) 등 많은 문화재가 있다.

앞서 순천시는 선암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첫걸음으로 지난해 12월 잠정목록 등재를 했고, 2018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설정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무국을 설치해 전담해 하는 한편 연구와 조사,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예정열기자 jyj@

/해남=박희석기자 dia@

광양 한려대, 간호학 신설 등 대대적 변신

광양시에 위치한 한려대학교가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대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려대학교는 최근 대학원위원회와 교무회의를 열고 대학원의 학과와 전공을 재조정하는 등 학칙을 개정했다.

한려대는 기존에 석·박사과정이 있는 일반 대학원과 석사과정이 있는 사회복지대학원·경영행정대학원·산업대학원 등

총 3개의 특수 대학원을 운영해 왔다.

이번 학칙 개정에 따라 한려대는 경영행정 대학원에 방재안전관리학 전공을 신설하고, 물리치료학 전공과 보건학 전공이 설치된 산업 대학원을 보건대학원으로 개명했다. 또한 간호학 전공, 방사선학 전공, 임상병리학 전공, 언어치료예술통계학 전공을 신설해 내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나주 백호문학관, 전문 박물관 등록

33억 투입 집필실 등 3층 규모

나주시의회 방문·활성화 논의

조선 중기 시인이자 문신인 백호(白湖) 임제(1549~1587) 선생의 문학사상 등을 기리고자 건립한 백호 문학관이 전문 박물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나주시는 "백호 문학관이 전남도 실사를 거쳐 최근 제2종 박물관(전남-제30호)으로 정식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업비 33억원이 투입된 문학관은 대지 3875㎡, 전체면적 387㎡, 지상 3층 규모로, 수장고와 집필실, 문학사랑방, 전시관을 갖췄다.

나주시의회 의원들이 폐회중임에도 지

난해 4월 개관한 '백호 문학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방문 활동을 벌였다. <사진>

나주시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윤정근) 소속 의원들은 지난 7일 다시면 회진리에 위치한 백호 문학관을 방문했다.

시의원들은 문학관 관계자로부터 문학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족한 시설관리 인력배치와 백호 문학관과 영모정을 연결하는 산책로 확보 등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나주 출신 백호 임제(1549~1587) 선생은 조선 중기의 문장으로 황진이 무덤을 지나며 읊은 '청초 우거진 골에...'로 시작된 시조 등으로 널리 알려진 조선 중기의 문장가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새얼굴

"고향 발전 위해 일할 기회 영광이다"

양재 승 해남부군수



"초심(初心)을 잃지 않는 공직자로서 군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해남군 양재승(57) 신임 부군수는 "고향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영광"이라며 "전국 제일의 농업 군(郡)이자 문화관광지원의 보고(寶庫)인 해남의 미래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창의적인 군정을 펼쳐나가는데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해남 출신인 양 부군수는 전남대 행정학과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지난 1977년 해남군 문내면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전남도 기획관리실 투자심사담당, 전남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전남도립 도서관장 등을 지냈다.

가족사항으로는 부인 신복자 씨와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전북 소식

남원 포도, 베트남·뉴질랜드도 인정

올 10t 수출...홍콩 등도 예정

출하기간 길고 저장성 탁월

남원시의 대표적인 특화작목 중 하나인 포도가 베트남과 뉴질랜드로 수출됐다.

10일 남원시에 따르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남원포도가 춘향골 농협과 남원원예농협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공동 선별돼 베트남과 뉴질랜드에 10t을 수출했다.

남원 포도는 삼진강의 평야지와 지리

산 고랭지에서 재배해 다른 지역에 비해 출하기간이 길고 저장성이 강해 국외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대형유통업체에 납품되고 있다. 시는 올해 베트남,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홍콩, 싱가포르 등에 40여t의 포도를 수출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특산물의 수출 확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외박람회 참가와 남원포도가 춘향골 농협과 남원원예농협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공동 선별돼 베트남과 뉴질랜드에 10t을 수출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순창군 무기계약직 호봉제로 전환

급식비 지원 등 처우개선

순창군이 지난 1일부터 무기계약 근로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로 전환하고 급식비 지원 등 시설해 안정적인 처우개선에 나섰다.

호봉제 시행으로 순창군의 무기계약 근로자 전체 161명 가운데 이미 호봉제를 실시중인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요원 등 43명과 의존재원 등 적용제외대상 31명

을 뺀 나머지 87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절차로는 업무 특성이나 성질이 비슷한 직종별로 분류해 각 직군별 기본급을 책정하고, 임금 단계와 월 급여에서 직군별 기본급에 의해 호봉제로 전환한다.

이번 호봉제 전환으로 새로 신설되는

수당은 급식비 월 13만원이며, 상여금은 기존 분기별 기본급의 합 3분의 1에서 기본급의 50%씩 연 4회가 지급된다.

또 시간의 근무수당도 기존 시급×시간의 근무시간만 주던 방식에서 시급×시간의 근무시간×1.5로 확대 지급함으로써 수당이 높아짐에 따라 무기 계약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그동안 무기계약 근로자는 들어온 지 1년 된 사람이나 몇 년 된 사람이나 똑같은 보수체제로 돼 있어 불만이 뒤따랐다"면서 "이번에 호봉제로 전환함으로써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시기적절과 근로의욕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군산시 흰찰쌀보리 명품화 사업 '박차'

군산시가 흰찰쌀보리 명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홍원)는 올해에도 흰찰쌀보리 명품화 사업을 추진해 명실상부한 군산 특산물로 지속 육성한다.

센터는 흰찰쌀보리 자체 채종포단지 40ha와 흰찰쌀보리 지리적 특산물화 단지 40ha를 조성해 안정적인 우량종자를 공급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순도 높은 흰찰쌀보리로 특산품을 생산해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자체 채종포단지와 지리적 특산물화 단지를 조성하고 철저한 포장·

종자 검사로 흰찰쌀보리 품질의 향상에 기여해 왔다.

특히 보리를 활용한 막걸리와 진포빵, 보리한과 등 가공제품 생산과 함께 흰찰쌀보리의 소비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흰찰쌀보리 명품화 사업은 우량종자, 비료, 농약 등을 지원하고 개소당 5ha내외로 조성된다"며 "사업신청 대상인 법인 및 조합, 도정업체는 해당지역의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14일까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박근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4성급★
호텔건물매매

- 현재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득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완료
-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
- 4성급호텔, 노인병원 등 즉시 사업가능 (카피숍은 휴업중)
- 주차장 및 부속상가 건물 3동

· 한국건설원 감정가 보다 20% 감액 매매 예정
· 매매가격 상당 후 결정
· 현장 답사 요망

목포시 대의동 2가 1-9번지의 3필지(지상 9층 지하 1층)
토지면적 3,478㎡(1,054평)/건축면적 7,091㎡(2,149평)

연락처 010-9823-7781, 010-9696-8701

NAVER **다들 물어봐** **응답률 100%**

단비플라워

죽아와원3단 근조와원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저렴한 공장용지
본촌산단 공장용지
물류창고부지 최적

· 면적 : ① 39,600㎡
② 23,600㎡
· 매가 : 3.3㎡ 당 90만
◎분할도 매매 가능◎

최고의 전원주택지
서구 세하동 최고 요지
정남향 앞도로 접, 조망권 최고 !!

· 지역 : 1종 주거지역
· 지목 : 전.
· 면적 : 1917㎡
· 매가 : 3.3㎡당 120만

투자 유망
무안군 운남면 내리 확대한 절경의 해변

· 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목 : 전 및 대지,
· 면적 : 13,939㎡
· 매가 : 4억 6천

행운(구 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송창석
011-642-7777

收益 **33.3% 호텔**
"급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융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 바람

신세계공인중개사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